

#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의 정의

안명준 (성서대 초빙교수, 평택대 명예교수)

## I. 서론

본 연구는 칼빈이 자신의 신학 체계 내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추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칼빈은 현대적 의미의 사전적 정의를 명시적으로 남기지 않았으나, 그의 방대한 저작 속에는 신학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암시적 지표들이 산재해 있다. 본고는 칼빈의 의중과 완벽히 일치하는 단일 정의를 확정하기보다는, 그의 신학적 맥락과 서술 요소들을 종합하여 칼빈의 관점에 가장 근접한 ‘신학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칼빈이 ‘신학(Theologia)’ 및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개념(theologia, theologus, doctrina)에 대해 기술한 신학적 진술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그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와 주요 주석서 등에 나타난 용어적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신학의 정의> 개념을 유추적으로 재구성한다.

본 연구는 현대 칼빈 연구가들의 신학적 프레임을 투영하기보다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sup>1)</sup> 칼뱅의 본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원칙을 고수한다. 텍스트 중심의 분석으로 후대 신학자들의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칼빈을 이해하려는 현대 해석적 틀을 배제하고, 칼빈이 직접 사용한 용어와 문장(Text) 자체를 제1차 사료로 삼는다. 따라서 문맥적 접근에 근거하여 특정 단어의 개별적 의미를 넘어, 해당 표현이 사용된 신학적 문맥(Context)을 추적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칼빈의 의도한 참된 의미를 도출한다. 역사적 관점으로 당대 16세기 인문주의적 배경과 종교개혁의 과제를 고려하여, 칼빈이 사용한 언어의 역사적 적실성을 확보한다. 글의 진술의 성격은 서술적 정의(Descriptive Definition)의 방식으로 ‘칼빈을 칼빈으로 해석한다’(Calvinus per Calvinum interpretandus est)는 원칙에 입각하여, 그가 사용한 표현들로부터 신학의 정의적 개념을 간접적으로 유출(Elicit)한다.

이러한 시도는 칼빈 신학의 구조를 단순한 교리적 나열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지혜의 체계’로서 그의 신학에 대한 재이해를 촉진 할 것이다. 비록 그 결과가 칼빈의 사유를 완벽히 포괄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칼빈 신학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실증적이고 근접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의 어려움과 연구 방법

마르틴 루터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sup>2)</sup> 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신학은 실

1) 이승구, “칼빈의 신앙 이해에 대한 한 연구”, 『국제신학』 제 2권 (2000): 163-191.

2) Martin Luther, *Operationes in Psalmos* (1519-1521), Weimarer Ausgabe (WA) 5:176. 32-33, on Ps. 5:12, 김영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영성과 십자가 신학 착상, 오늘날 의미”, 507주년 종교개혁포럼 츠빙글리종교개혁기념대회, (2026.02.09.) 11-12 페이지에서 재인용. 2026년 올해는 김영한 박사가 한국개혁신학회를 창립하신지 30주년이 되며, 10월 18일 80세를 맞으시는 의미 있는 해로 한국신학계와 한국교회를 위해 공헌하신 것과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베푸신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

천적이며, 그 기초는 그리스도이니, 그분의 죽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sup>3)</sup>라고 주장하였다. 김영한 박사에 따르면 루터의 신학은 중세 스콜라주의의 사변적·이론적 신학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하는 실천적·실존적 신학이다. 십자가 신학은 인간성을 부정하는 부조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수치와 패배로 보이는 십자가를 구원과 승리, 그리고 은총 안에서 새 창조의 출발점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한다.<sup>4)</sup>

이은선 박사는 루터의 신학은 학문화된 스콜라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가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연구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한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고 십자가 신학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십자가가 참된 신학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신학을 올바르게 안 뒤에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이 진리가 성경에서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십자가 신학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구원의 주를 인식하는 신학이었다. 이 신학은 이신칭의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신칭의는 궁극적으로 오직 성경에 의해 확립되었다.<sup>5)</sup>

칼빈은 십자가 신학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학의 정의를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한 루터와 달리, 신학(theologia)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독립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신학을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서술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신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칼빈이 왜 직접 자기 스스로 <신학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칼빈은 기독교 강요 본문에서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를 거의 단일한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칼빈이 신학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배경과 신학이라는 용어의 미사용(未使用)에는 그가 중세 스콜라 신학의 논쟁적, 사변적 성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본문에서 여러 차례 사변적 신학에 대해하여 철저하게 비판을 하였다. 또한 신학 용어의 미사용에 대한 이유는 칼빈에게 신학은 목적 그 자체도 아니며, 권위의 최종적 위치에 놓여서도 안 되는 학문이었다. 그에게 신학은 성경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이며, 언제나 성경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그는 신학의 권위나 신학자의 주장을 강조하기보다, 성경 이해를 돕는 도구로서의 신학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잘못된 스콜라 신학이 과도한 사변과 권한 남용을 통해 교회와 참된 종교를 훼손했다고 보는 그의 비판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스콜라 신학과 관련하여 리차드 A. 멀러(Richard A. Muller)에 따르면, theologia scholastica는 흔히 “스콜라주의 신학”으로 번역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학문적인 신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는 중세,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 전반에 걸쳐 학문적 연구 방식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멀러는 칼빈이 중세 스콜라주의의 불필요한 사변(speculatio)은 거부했으나, 학문적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콜라적 방법들—예컨대 loci, disputatio, distinctio—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한다.<sup>6)</sup> 따라서 칼빈은 스

며,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3) Martin Luther, Tischrede Nr. 153 (1531/32), WA TR 1:72, 16f; Luther's Works (LW), 54:22.

김영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영성과 십자가 신학 착상, 오늘날 의미”, 11 재인용.

4) 김영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영성과 십자가 신학 착상, 오늘날 의미”, 11-12.

5) 이은선, “루터에게 있어서 신학과 경건의 의미”, 507주년 종교개혁포럼 츠빙글리종교개혁기념대회 (2026.02.09.), 14. 이은선 교수님께서 2026년 1월 31일에 번역하신 Richard A. Muller의 『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신학』 책에 대한 핵심적인 논제를 설명 주시고, 발표하실 귀한 논문을 신속하게 필자에게 공개해 주셔서 부족한 사람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6) 칼빈은 스콜라적 방법을 모두 거부하여 단절하지 않고, 잘못된 스콜라적 교리 내용과 신앙 목적에는

콜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인물이 아니라, 인문주의적 세련미를 더하여 스콜라 전통을 개혁신학적 맥락에서 재구성한 신학자로 이해될 수 있고 평가한다.

칼빈은 당시 스콜라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학문적 정의로서의 신학(theologia)보다는, 성도를 가르치고 세우는 교리(doctrina, 가르침)라는 용어를 훨씬 선호했다.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안에서 칼빈은 어거스틴(Augustinus), 피터 롬바르트(Petrus Lombardus),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같은 저명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고 신학적 논쟁을 전개하면서도, 신학자(theologus, doctor theologiae)나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 자체는 극히 절제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칼빈에게서 신학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비록 빈도는 높지 않지만, 신학(theologia)라는 용어는 『기독교 강요』의 여러 대목에서 간접적으로 사용되며, 요한복음 주석과 로마서 주석을 비롯한 성경 주석들에서는 매우 희귀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용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칼빈이 이해한 <신학의 정의> 개념을 추론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칼빈에게서 신학의 정의를 규정하는 데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신학에 대해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를 제시하지 않고, 주로 서술적 정의(descriptive definition)의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선언하기보다, “신학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텍스트 속에서 보여준다. 또한 신학 자체를 주제로 삼는 메타 신학적(μεταθεολογία) 논의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칼빈의 신학 정의에 대한 연구는 단일한 정의 문장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 그의 저작 전반에 흩어져 있는 신학적 언어와 개념들을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을 좀더 구체적인 이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신학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여 신학을 진술했다라는 점이다. 여러 그의 사상을 대변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다. 칼빈이 신학을 논함에 있어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규범적 의미를 부여한 핵심 개념들은 하나님 인식(cognitio Dei), 인간 인식(cognitio sui), 경건(pietas)<sup>7)</sup>, 참된 종교(vera religio), 그리고 성경(Sacra Scriptura), 교회 등이다. 또한 칼빈의 전 저작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중심 신학 주제들은 그리스도 중심성(Christus mediator), 성령의 내적 증언(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 그리스도와 연합(unio cum Christo) 그리고 신학의 교회적·실천적 목적(aedificatio ecclesiae)과 같은 개념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

---

타협하지 않았다(unaccommodated)고 리처드 멀러는 주장한다. 칼빈이 개념 구분, 논증 구조와 방법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Richard A. Muller, 『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신학』, 이은선 역 (서울: 나눔가 섬김, 2003), 101-162.

7) 칼빈(Jean Calvin)이 말하는 경건(pietas)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나 도덕적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어 전 인격과 삶을 형성하는 신앙의 태도이다. 칼빈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ietas이며, 『기독교강요』와 성경주석에서 일관되게 규정된다. “Pietas est, quae Deum cognoscere docet cum reverentia coniuncta.”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외심과 함께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다.”)(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경외가 결합된 것이다)(Inst. I.2.1)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uilielmus Baum, Eduard Cunitz, Eduard Reuss Corpus Reformatorum. XXX (Brunsvigae : C.A. Schwetschke, 1864) I.2. 이후로는 CO로 표기한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Trans., Ford Lewis Battle (Grand Rapids: Eerdmans, 1960). 이후로 Inst., 표기한다. 이후로는 Inst.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 Peter Barth und Wilhelm Niese (München: Kaiser, 1926). 이후는 OS로 표기한다.

에서는 시간적 제한으로 핵심적인 용어인 교리(doctrina)만을 선택하였다. 이 용어는 신학과 거의 같은 단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빈도 수가 다른 용어보다 많았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며, 그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이 교리라는 개념의 이해는 칼빈의 신학 전반을 해석하는 지렛대가 될 뿐 아니라, 칼빈에게서 신학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암시적으로 밝혀준다.

본 연구는 칼빈의 저작들에 나타난 신학의 이해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그의 신학 이해에 내재된 서술적 정의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신학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둘째는 신학이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 안에서 이해되어 기능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칼빈의 신학을 “신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추상적 논의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칼빈이 사용한 신학의 용어 사례와 그의 작품에 나타난 신학 관련 용어들을 가지고 신학의 서술적 정의에 근거하여 추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칼빈이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표현들(expressio directa)을 수집·분석하고, 이어서 신학 개념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간접적 표현들(expressio indirecta)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이들 의미를 종합·조율하여 하나의 개념적 틀을 구성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이 결과를 완결된 정의(definitio perfecta)로 제시하기보다는, 텍스트로부터 신학의 유추적 정의(definitio analogica theologiae)로 제시한다.

### III. 신학과 관련된 칼빈의 표현(expressio directa)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을 강화시키고, 진리의 말씀의 봉사자가 진정한 신학자이다. 칼빈은 신학을 봉사의 학문으로 이해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역에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는 학문으로 이해하였다. 칼빈에게 신학은 권위를 가진자가 설득하는 포고(布告)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위한 봉사(Theologia est ministerium Scripturae) 학문이다. 경건과 올바른 교리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I.1. 신학용어의 직접적인 표현들

칼빈은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신학 앞에 ‘거룩한(sacra)’이라는 형용사를 부가함으로써, 신학의 정체성과 기원성이 인간의 사변이나 학문적 자율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칼빈은 ‘사변적 신학(speculativa theologia)’이라는 표현에서 형용사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 평가를 분명히 드러내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문자의 신학(theologia litterae)’, 중세의 사변적 신학, 스콜라주의 신학, 로마 가톨릭 신학에 대한 비판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그는 피터 롬바르드(Peter Lombard)와 소르본(Sorbonne) 신학자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며, 이들의 신학이 성경의 본래적 의도와 경건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인간의 이성과 논증에 치우쳤음을 강하게 비판한다.

우리는 먼저 신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들을 통해 <신학의 정의> 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신학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학문이었다. 칼빈 역시 어거

스틴과 중세 이후에 신학이라는 보편적 규정으로 그 개념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신학을 직접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았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는 아퀴나스가 사용한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이나 대학이나 교회에서 널리 쓰여진 신학 강의(Lectio Theologica) 혹은 중세 스콜라 전통에서 사용된 신학 낭독(Praelectio Theologica), 기독교 신학(Theologia Christiana) 등의 책명으로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를 선택하였다. 경건의 총체와 구원의 **교리**(doctrina salutis)가 강조된 문구를 표지 앞에 삽입하여 기독교강요 출간되었다.<sup>8)</sup> 이런 그의 의도는 중세 스콜라 신학의 사변적이고 논쟁적이며 현실적 삶과 동떨어진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신학이라는 용어를 **기독교 강요**에서 쓴 곳을 살펴보자. 1559년 최종판 서문에서 독자에게 드리는 글 (Epistle to the Reader)에서 자신의 저작 목적이 **거룩한 신학(Sacra theologia)**의 후보자들(**sacrae theologiae candidatos**)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divini verbi lectionem**) 쉽고 막힘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나아가 이 작업에서 나의 목적은 **거룩한 신학**의 후보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적절히 준비시키고 교육하여, 그들이 성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sup>9)</sup>

여기서 신학이라는 단어는 사용했지만 신학의 본질적 특징이나 명료한 정의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theologia 앞에 sacra를 사용함으로써 칼빈은 중세시대의 스콜라 신학(theologia **scholastica**)과 구별된 성경에서 나오는 신학(sacra theologia ex sacra **Scriptura**)을 참된 거룩한 신학(vera Sacra theologia)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신학이요<sup>10)</sup>, 성경에 근거한 신학(Scripture-based sacred theology)만을 진정한 신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신학의 권위를 성경 그 자체에(the authority of theology in Scripture itself) 두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8) 1536년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totam ferè pietatis summam, et quic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s editum". "기독교 종교의 강요, 거의 모든 경건의 총체와 구원의 교리 안에서 알아야 할 모든 필수적인 것을 포괄하는 책으로서, 모든 경건을 추구하는 이들이 읽기에 가장 합당한 작품이며, 최근에 출판된 것이다."

1559년 Genevae에서 Oliua Roberti Stephani에서 출판된 제목은 다음과 같다. "INSTITVTIO Christianæ religionis, in libros quatuor nunc primùm digesta, certisque distincta capitibus, ad aptissimam methodum: aucta etiam tam magna accessione vt propemodum opus nouum haberi possit". "기독교 강요: 이제 처음으로 4권으로 분류 정리되었으며, 가장 적절한 체계에 따라 확실한 장(章)들로 구분되었다. 또한 매우 방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거의 새로운 저작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칼빈은 1559년 최종판을 인쇄할 때 당시 제네바에서 활동하던 최고의 인쇄업자였던 로베르 에티엔(Robertus Stephanus)에게 작업을 맡겼다. 에티엔은 칼빈의 신학적 사상에 동의하며 그의 저술들을 정교하고 아름다운 판형으로 찍어냈으며, 자신의 출판사를 상징하는 이 올리브 나무 출판사 문장(Printer's Mark)을 표지에 새겨 넣었다. 나무 사이에 걸린 리본에는 "NOLI ALTVM SAPERE"라는 라틴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로마서 11장 20절의 내용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교만하지 말라)"는 뜻이다.

9) "Porro hoc mihi in isto labore propositum fuit, **sacrae theologiae** candidatos ad divini verbi lectionem ita praeparare et instruere, ut et facilem ad eam aditum habere, et inoffenso in ea gradu pergere queant." CO "IOANNES CALVINUS LECTORI".

10) 안명준, "칼빈과 성경해석", 『칼빈 2:칼빈, 그 후 500년』 한국칼빈학회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73-194.

(divini verbi lectionem)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여기 형용사 거룩(sacra)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로마 교회의 성찬(the Mass)을 비판하면서 칼빈이 진정한 성찬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Christ's Sacred Supper)이라고 하였다.<sup>11)</sup>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룩이다. 따라서 sacra는 성찬이 주님과 관련된 거룩한 말씀이며 순수한 성경의 말씀임을 밝힐 의도 속에 강조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칼빈은 신학이 성경 읽기를 돕는 안내서로 규정됩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신학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 신학은 성경을 가르키는 집게 손가락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신학은 항상 성경을 가르켜야 한다. 기독교 강요의 목적은 성경 잘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이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이 자신의 신학 그 자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성경으로 가는 문(Aditus)이 되기를 원했다. 신학은 또한 성경 말씀의 이해와 관련된다. 신학은 성경에 종속되어야 하며 신학은 성경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올바른 신학은 성경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하여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학이라는 용어를 매우 적게 사용하여서 그 단어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주석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이 용어의 절제는 아마도 스콜라 신학의 사변적 논쟁을 막고, 좀더 실천적이며 교육적인 관점에서 경건이나 교리나 지혜라는 용어를 선호한 것 같다. 이런 경향은 기독교 강요 프란시스 1에게 보내는 헌사에서 나타난다.

모든 교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궤변가들의 교활한 행동으로 더럽혀졌고, 변증론자들의 논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몹시 싫어하였으며 이구동성으로 증오하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끝없는 논쟁과 궤변보다도 더 사악한 이론으로 성경의 단순성을 혼란하게 하며 흐리게 하는 일을 일삼아 왔으니, 과연 그들이 이 한계 내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지금 교부들이 되살아나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사변적(思辨的) 신학(speculativam theologiam)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들었다고 하면, 아마 이 이상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sup>12)</sup>

**사변적 신학(speculativa theologia)**이란 논쟁과 궤변으로 성경의 단순성을 흐리게하는 것으로 실천과 경건이 결여된 채 오직 지적 호기심과 논리 체계에만 몰두하는 신학을 말한다. 칼빈은 이를 "하나님에 관한 논의(sermonem de Deo)"가 아니라고 보았다. 칼빈이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앞에 부정적 의미 단어와 함께 나오는데 로마 카톨릭 신학, 스콜라 신학, 사변적 신학 등 이다. 결국 거룩한 신학에 미치지 못하는 사변적 신학에 대해서 칼빈의 부정적 평가를 한다.

칼빈은 유대인과 관련하여 문자(의문)의 신학 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말은 칼빈이 직접 사용한 말이다. **로마서 7장 9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 어려서

11) Inst.4.18.1.

12) 칼빈, 『기독교 강요』 (서울: 1991, 생명의 말씀사), 59. CO 2. "Praefatio ad Regem Galliae", "Patres omnes uno pectore exsecrati sunt et uno ore detestati, sanctum Dei verbum sophistarum argutiis contaminari et dialecticorum rixis implicari. An isti iis limitibus se continent, dum nihil aliud in tota vita moliuntur, quam infinitis contentionibus et plus quam sophisticis iurgiis scripturae simplicitatem involvere et impedire? ut si nunc patres suscitentur, et huiusmodi iurgandi artem audiant quam **speculativam theologiam** appellant isti, nihil minus credant quam de Deo haberi disputationem."

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배웠던 학문을 **문자의 신학(theologia literae, the theology of the letter)**이라고 말하였다.<sup>13)</sup> 과거에 바울은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학이 신구약 성경을 인간의 이성이 주인이 되어 외형적으로 표면적인 학문적 연구만 추구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신학은 율법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형성할 때 바르게 알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칼빈은 구원이 전적 부패한 죄인 인간의 미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신학의 원리** 혹은 **신학의 첫 번째 원리(principium theologiae)**은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선한 행위가 아닌 은총에 근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sup>14)</sup>

여기서 칼빈은 신학의 원리(신학의 첫 번째 원리)가<sup>15)</sup> 대단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인간의 본성은 부패한 죄인으로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는다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신학의 첫 번째 원리이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교리라고 보았다.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의 공로를 말한다고 한다. 특히 소피스트(궤변가)들이 명백한 의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소한 구별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한다. 칼빈은 소피스트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칼빈은 여기에서도 in principio theologiae(신학의 원리에서)이 주격이 아닌 탈격으로 사용되어서 진정한 신학이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학의 첫 번째 원리로 보았다. 특정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 신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신학은 특별 계층으로 성직자나 사제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참된 가르침과 교훈

13) John Calvin, *Commentary on Romans* 7:9. "It is indeed certain, that he had been taught the doctrine of the law from his childhood; but it was the theology of the letter, which does not humble its disciples, for as he says elsewhere, the veil interposed so that the Jews could not see the light of life in the law; so also he himself, while he had his eyes veiled, being destitute of the Spirit of Christ, was satisfied with the outward mask of righteousness."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배워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문자의 신학'으로서, 그것을 배우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지 못한다. 그가 다른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이 가려져 있었던 것과 같이, 그 자신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눈이 가려져 있는 동안에는 외적인 의의 가면으로 만족했던 것이다."

14) 존 칼빈, 『칼빈주석:로마서』 9:11 민소란 옮김 (서울: 규장, 2013), 345. 또 다른 번역으로 존 칼빈, 『로마서 주석』 9:11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295. CO 49.1770178. "Non sunt Paulo magis perspicaces, sed in **principio theologiae** impingunt, quod debuerat esse Christianis omnibus notissimum: nempe Deum in vitiatam hominis natura, qualis in Esau et Iacob fuit, nihil posse considerare quo ad beneficiendum inductur."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9:11, (Grand Rapids: Baker, 1979), 349. "Now they who argue on the other side, and say, that this is no reason why the election of God should not make a difference between men according to the merits of works, for God foresees who those are who by future works would be worthy or unworthy of his grace, are not more clear-sighted than Paul, but stumble at a principle in theology, which ought to be well known to all Christians, namely, that God can see nothing in the corrupt nature of man, such as was in Esau and Jacob, to induce him to manifest his favour".

15) Principium은 오리겐의 작품 On the First Principles (Peri Archon Greek: Περὶ Ἀρχῶν; Latin: De Principiis)에서처럼 서구 학자들은 주로 **첫 번째 원리**로 번역하였다.

이기에 누구나 알고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신학의 정의에 대하여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서 칼빈이 사용한 신학이란 성경적 참된 교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자신이 이해한 교리적 관점에서 주장한다. 즉 인간 행위의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지 본질상 죄인의 행위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참다운 교리이며 올바른 신학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principium이 규범의 규정 가 아닌 근원적, 근본적 원리로 이해하면 된다. 신학의 규칙이나 신학의 규범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칼빈의 의도를 살려서 신학의 첫 번째 원리로 번역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이런 첫 번째 신학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반대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소피스트이며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것을 말한다. 칼빈은 신학이란 인간의 공로를 말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며, 스콜라 신학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참된 은혜를 모르고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소피스트(궤변가)들은 진정한 신학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칼빈에게서 신학(theologia)은 결코 삼위 하나님과 분리된 자율 학문이 아니다. 인간 이성의 자율적 주장으로 인한 신학 연구는 정당성을 확보받지 못한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기독교 종교에 대한 셀프 연구이며 이단들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학은 삼위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 안에서만 성립한다. 칼빈은 삼위 하나님과 분리된 신학을 단호하게 부정한다. 그리스도의 관계속에서 이해되는 관계의 신학을 보여준다.<sup>16)</sup>

칼빈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주석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길”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한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학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 신학(Omnis theologia)은 그리스도(하나님)와 분리되어 있을 때 허망하고 혼동스러울 뿐 아니라, 광적이고 기만적이며 가짜이다. 철학자들은 때때로 현란한 말들을 토해내지만, 그런 말들은 덧없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속에 사악한 오류들이 뒤섞여 있다”<sup>17)</sup>

16) 김영선, 『관계신학, 관계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 인간, 세계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선회, 2012), 50.

“관계신학은 모든 신학적 진리를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신학은 하나님, 인간, 세계, 신앙, 교회, 세례, 성만찬, 기독교 교육, 기도, 예배, 찬양 그리고 목회 등을 비롯한 신앙의 내용을 관계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관계신학은 신학적 진리의 자료와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 양자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술어이다. 관계신학은 신학을 인간과 세계와 관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 정의함으로써 시작한다. 관계신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서 종교적 삶의 원천으로 일하심을 인정한다. 관계신학 관점에서 신학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고, 복음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선물이다.”

17) “All theology, when separated from Christ, is not only vain and confused, but is also mad, deceitful, and spurious; for, though the philosophers sometimes utter excellent sayings, yet they have nothing but what is short-lived, and even mixed up with wicked and erroneous sentiments. 85-86. John Calvin, *Commentary on Gospel According to John* 14:6, Vol. 2 (Grand Rapids: Baker, 1979), 85-86. CO 47. 85-56. “Omnis theologia, quae a Christo separatur, non modo vana et confusa est, sed etiam insana, fallax et spuria; nam etsi philosophi interdum praeclara efferant, nihil tamen habent nisi quod caducum est, atque etiam pravis et falsis opinionibus permixtum.” 참고로 정성구, 『설교자를 위한 칼빈의 신학사건』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0), 268-269 (요한복음 주석 2권, p.85).

하나님 인식과 신학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Christus mediator)로서, 모든 신학은 그리스도를 향해 지향된다<sup>18)</sup> 신학이란,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요한 5: 39),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교회와 신자의 삶 전체에 적용하도록 질서 있게 탐구하는 학문이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수 없다.

칼빈은 디모데 전서 주석 서문에서 스콜라 신학이란 공허하고 쓸모도 없고, 단지 형식적이며 사변적 혼돈의 신학으로 본다. 로마카톨릭 교회의 신학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관점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법을 가증하게 모독하는 일은, 그 법에서 유익한 것을 이끌어내지 않고 오로지 말쟁이 노릇을 하기 위한 재료로만 취급하는 것이며, 교회를 경멸스러운 하찮은 일들로 괴롭히기 위해 법의 외양만을 빌려 이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가 가톨릭 체제(Popery) 안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만연해 왔습니다. 스콜라 신학은 비어 있고 쓸모없는 사색들의 거대한 혼돈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 자신의 명석함을 뽐내기 위해, 마치 그것이 세속 철학인 양 멋대로 주무르는 자들이 많습니다.<sup>19)</sup>

칼빈은 교황주의자들(Popery)은 성경의 **참된 의미를 제쳐놓고**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망쳐놓곤 한다. 로마 카톨릭교의 신학은 거대한 혼돈이요 가공할 만한 미궁이라고 한다.<sup>20)</sup> 칼빈은 디모데전서 주석, 특히 1:4와 6:20에서 스콜라 신학을 “끝없는 사변과 거짓된 지식”으로 규정하며, 경건과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신학을 사도적 신학의 이름으로 단호히 배제한다. 칼빈은 소르본 신학자들이 권위적인 결정을 선언할 때 교만과 거만을 본다고 한다(1:7).

### III.2 간접적인 표현(expressio indirecta)

칼빈이 신학을 논함에 있어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규범적 의미를 부여한 핵심 개념들은 신학자(theologus), 교리(doctrina), 하나님 인식(cognitio Dei), 자기 인식(cognitio sui), 경건(pietas),<sup>21)</sup> 참된 종교(vera religio), 그리고 성경(Scriptura Sacra)이다. 또한 칼빈의 전 저작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중심 신학 주제들은 그리스도 중심성(Christus mediator), 성령

18) Inst., 2.13, 3.1.

19) John Calvin, “The Argument on the First Epistle to Timothy”,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Grand Rapids: Baker, 1979), 14. “Longer than enough have such corruptions prevailed in Popery; for what else was the scholastic theology than a huge chaos of empty and useless speculations? And in our own day there are many who, in order to display their acuteness in handling the word of God, allow themselves to sport with it in the same manner as if it were profane philosophy.”

20)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1, 41.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2. 122.

21) 안명준, “칼빈의 영성과 성경해석”, 『칼빈과 영성』,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4 (부산:개혁주의학술원, 2010): 73-92.

의 내적 증언(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 그리스도와 연합(unio cum Christo) 그리고 신학의 교회적·실천적 목적(aedificatio ecclesiae)과 같은 개념들이다. 신학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 또한 그의 신학의 정의 개념을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금번 연구에서 신학자와 교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신학자(Theologus)

신학(테오로기아, θεολογία)이란 용어는 그리스어 θεός(테오스, God, 신)와 λογία(로기아, words, 학)의 결합으로 생긴 말이다.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Plato)은 그의 책(*The Republic*, Book ii, Ch. 18)에서 신학(θεολογία, 테오로기아)이라는 말은 신에 관한 이야기(discourse on divinity)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 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형이상학이 가장 보편적인 존재, 즉 존재 자체를 고찰하는 학문이며 제일철학이라고 했다.<sup>22)</sup> 그에게 있어서 제일철학으로서 신학은 존재의 근거이며 존재의 완성이신 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discourse on the nature of the divine)를 의미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학이란 신화론과 유사했다. 교회는 신학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거룩한 교리(*sacra doctrina*)라고 표현하였다.<sup>23)</sup> 후대에 이르러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 이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가 교회의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학문으로 사용되었다.<sup>24)</sup>

박형룡 박사는 중세 프랑스의 스콜라 학자인 피터 아벨라드(Peter Abelard)가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데 처음으로 신학(*theologia*)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인물로 말한다.<sup>25)</sup> 아벨라드의 신학 작품으로 1120년부터 1140년 사이에 《*Theologia Summi Boni*》를 시작하여 《*Theologia Christiana*》를 거쳐 《*Theologia Scholarium*》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동일한 신학 내용을 학문적·교육적 목적에 따라 점차 체계화한 저작군이다. 칼빈 신학과 그것에 근거하여 칼빈에서 <신학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학의 참된 의의가 죄인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면, 신학자의 임무는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보여주는 자이다. 따라서 신학의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Edification) 데 있다. 칼빈은 이런 목적 안에서 신학자의 의무는 성경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원하시는 것의 요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다.<sup>26)</sup>

만일 로마 신학자들이 이런 일에 충성스럽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도적질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sup>27)</sup> 교회에서 당파를 짓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우리의

22) "Aristotle defines metaphysics as the knowledge of immaterial being or of being in the highest degree of abstraction. He calls metaphysics the first philosophy and the theologic science." <http://aristotle-philosophy.com/>

23) 로버트 L. 레이몬드, 『최신 조직신학』, 나용화의 번역 (서울: CLC, 2004), 23.

24) 신학이란 용어의 역사를 위한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Theology>.

25) 박형룡, 『조직신학 1권 서론: 계시(성경)론』, 개정감수 김길성 (서울: 개혁주의출판사, 2017), 39.

2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From the French edition of 1560", "the duty of those who have received from God fuller light than others is to help simple folk at this point, and as it were to lend them a hand, in order to guide them and help them to find the sum of what God meant to teach us in his Word".

원수들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박탈하는 자들이며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삭감하여 자신들에게 어떤 명예를 더할려고 시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sup>28)</sup> 칼빈은 그의 명예를 제거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한다.<sup>29)</sup>

칼빈은 신학자는 상상하는 것이 금물이라고 한다.<sup>30)</sup> 자신이 가진 경험의 한계와 이성의 한계에서 만들어 낸 개념들이 결코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신학자는 성경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는 사람이다.

칼빈은 신학자의 의무는 그리스도만 갈망하고, 바라보며,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고 한다.<sup>31)</sup>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는 날까지 그만을 구하며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한다.<sup>32)</sup> 칼빈은 사람이 조작한 것을 섞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람이 자기 생각을 첨가할 때 하나님의 신비는 더럽혀진다고 보았다.<sup>33)</sup> 칼빈은 자신의 작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열정을 쏟아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 선 진정한 신학자였다.

그가 직접 신학자에 대하여 표현한 것으로 **신학자(Theologus)**의 임무라는 것은 말로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확실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우리의 양심을 강화**시키는 것이다.<sup>34)</sup> 신학자는 수다와 유모로 청중들의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을(vera, certa, utilia) 가르침 즉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양심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propositum)으로 연구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귀가 아닌 양심과 영혼을 다루는 학문이다. 사변적 신학이 아닌 성경에 근거하여, 사변적 이론이 아닌 참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신자와 교회를 실제로 세우고 경건을 형성하는 신학적 진리를 가르키라고 한다. 또 **참된 신학자(verus theologus)**에 대하여 칼빈은 **경건함에 더 큰 진보를 이룬 사람일수록 그가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양심을 세우는 자가 참된 신학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35)</sup>

27) Inst.,4.18.14. 미사 제도를 주장하는 로마 신학자들을 향해 모독을 가하는 자들이고 한다.

28) 칼빈, 『고린도전서 주석』 1:12, 신약성경주석 8, 56.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12, 52. “He does not allow them to be held in such honor as to derogate even in the slightest degree from Christ’s dignity. There is, it is true, a certain degree of honor that is due to Christ’s ministers, and they are also themselves masters in their own place, but this exception must always be kept in view, that Christ must have without any infringement what belongs to him – that, he shall nevertheless be the sole Master, and looked upon as such.”

29) 칼빈, 『고린도전서 주석』 1:13, 신약성경주석 8, 57.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13, 53. “Was Paul crucified for you? By two powerful considerations, he shows how base a thing it is to rob Christ of the honor of being the sole Head of the Church – the sole Teacher – the sole Master; or to draw away from him any part of that honor, with the view of transferring it to men. The first is, that we have been redeemed by Christ on this footing, that we are not our own masters.”

30) Inst.,4.18.14.

31) Inst.,4.18.20.

32) Inst.,4.18.20.

33) Inst.,4.18.20.

34) Inst.,1.14.4. CO 2 1.14.4. “Theologo autem non garriendo aures oblectare, sed vera, certa, utilia docendo, conscientias confirmare propositum est. Si librum illum legas, putes hominem de coelo delapsum referre non quae didicit, sed quae oculis vidit.”

35)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itus 1:2, 283. “And hence we are also informed, that the greater progress any one has made in godliness, he is so much the better disciple of Christ; and that he ought to be reckoned a true theologian who edifies consciences in the fear of God.” CO 52:406. “Atque hinc etiam admonemur, quo plus quisque in pietate

진정한 신학자와 대조적으로 잘못된 신학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는 자들이다. 칼빈은 롬바르드(Peter Lombard)를<sup>36)</sup> 대표적으로 잘못된 학자로 자주 비판하는데 그가 성경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7)</sup> 또한 소르본느 신학자들은 아무 근거 없이 닥치는 대로 성경 구절을 제시한다고 한다.<sup>38)</sup>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인용한다고 한다.<sup>39)</sup> 신학자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자이다. 성경의 참된 해석자는 성경 그 자체이다.(Verus interpres Scripturae est Scriptura ipsa) 칼빈은 성경을 탐구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의 조명(illuminatio Spiritus Sancti)을 받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sup>40)</sup> 신학자의 의무란 바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것이다.<sup>41)</sup> 따라서 그의 기독교 강요의 참된 목적은 신학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진정한 열쇠의 역할이었다. 신학자의 의무란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충실하고 참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이지 그의 명예를 빼앗는 자가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학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이 그의 권리와 영광을 위하여 도구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 한다.<sup>42)</sup> 칼빈은 진정한 교리는 세계의 모든 영광 위에 우뚝한 것이라고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했다.<sup>43)</sup>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수호자, 영광의 도구, 영광의 변증가이다.

## 2. 교리(Doctrina)<sup>44)</sup>

교리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룬다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교리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사도신경과 신앙고백서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진술한 교리의 정수이다.

### 2.1. 교리가 나타나는 작품들

칼빈은 이 단어를 많은 곳에서 사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기독교 강요, 주석, 논문, 서신, 그리고 교리문답서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먼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쓴 1536년 초판 기독교 강요 서문에 있는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에서는 칼빈은 약 26 번 정도로 교리(doctrina)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참된 교리를 설명하였다. 이런 많은 사용의 횟수는 칼빈이 의도하는 교리의 중요성과 이 교리가 프랑스 성도들의

---

profecerit, eo meliorem esse Christi discipulum: et eum demum habendum esse **verum theologum**, qui conscientias in timore Dei aedificat.”

36) 이은선, “피터 롬바르드의 신론”, 『역사신학논총』 11권 (2006): 29-57.

37) Inst.,3.15.7.

38) Inst.,3.18.9.

39) Inst.,3.18.10.

40) Inst.,1.17.3.

41) Inst.,2.3.8.

42) Inst.,4.3.1.

43)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기독교 강요』, 45-46.

44) 어원적으로 doctor (“teacher”) + -ina (feminine of -inus). 1. teaching, instruction. 2. learning, erudition 3. doctrine, theory. <https://en.wiktionary.org/wiki/doctrina>.

신앙적 삶과 존재의 문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이었다.

칼빈은 자신의 저서 제목을 『기독교 신학』이 아닌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로 책명(書名, title)을 쓰고, 부제(副題, subtitle)을 썼는데, 바로 여기서 교리의 성격과<sup>45)</sup> 교육적 성격이 나타나는 'Institutio'는 '교육', '지침', '기초 원리'를 의미하며, 이는 성경의 핵심 내용을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책명 용어와 함께 나타난 **구원의 교리(doctrina salutis)**라는 문구는 성경의 교리(doctrina)를 질서 있게 정리하여 가르치는 책으로 증거한다. 교리라는 단어는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에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 전체 본문 중에서 그의 신학적 사상을 이끄는 중요한 핵심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칼빈이 언급한 교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누가 어떻게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교리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기독교 강요의 본문의 여러 곳에서 칼빈이 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설명한 곳은 4권 8장 전체에 잘 나타나 있다. 이곳에서 칼빈은 교회의 권한과 교리의 관계를 다양한 주제로 설명한다. 참된 교회의 권한, 하나님의 종에 나타난 교리, 하나님이 주신 교리, 교리를 가르치는 자의 모습, 비 성경적 새로운 교리의 위험성,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관, 진정한 교리와 성경의 관계를 말한다.

그의 주석에서도 교리가 분명하게 나타난 곳들이 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주석, 예레미야 주석, 에스겔 주석, 소선지서 주석등에 많이 나타난다. 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기록된 말씀의 엄중함이 강조되었다. 신약에서 공관복음 주석, 사도행전 주석, 요한복음 주석, 로마서 주석과, 목회서신 주석에 많이 언급되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적용되는지에 집중되며, 교리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 개혁의 필요성>과 같은 작품과 서신들은 당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현장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략적 지침의 성격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리문답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교리적 일치를 강조하고, 교회의 화합보다는 진리의 순수성을 수호하며, 순수한 교리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2.2. 교리의 기원과 목적

칼빈이 주장하는 참된 우리의(프랑스 개신교) 교리란 그 기원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하였다.**<sup>46)</sup> 참된 교리의 수여자는 하나님으로 보았다. 또한 **참된 교리의 기원은 하늘이며, 하나님이라고 한다.** 교리는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we received the doctrine given from heaven).<sup>47)</sup> 성경의 교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 내용의 순수함과 신적 위엄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압도한다고 한다.<sup>48)</sup>

45) 1536년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totam ferè pietatis summam, et quic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s editum." “기독교 종교의 강요, 거의 모든 경건의 총체와 구원의 교리 안에서 알아야 할 모든 필수적인 것을 포괄하는 책으로서, 모든 경건을 추구하는 이들이 읽기에 가장 합당한 작품이며, 최근에 출판된 것이다.”

46)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45.

47) Inst.,4.15.25.

교리의 중요한 목적은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 경건한 삶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칼빈에게서 doctrina란,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질서 있게 가르쳐 신자를 경건한 삶으로 형성하는 규범적 가르침이며, 사변적 이론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복음의 교육적 전달 방식이었다. 칼빈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새로운 발명품(Novelty)이 아니라, 사도들과 초기 교부들이 전했던 고대의 순수한 진리라고 한다.

칼빈은 교리에 대한 유일하고 정당한 찬사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도록 가르치는가에 있다고 한다.<sup>49)</sup> 교리의 목적은 논쟁과 사색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9장 주석에서 경건한 자들은 참된 교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두려워 말라고 한다.<sup>50)</sup> 우리가 자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참된 교리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비록 이 참된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투옥과 추방, 몰수와 화형의 처벌로 핍박을 당하지만, 칼빈 자신은 이 교리의 개요(概要)를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에서 말하였다.<sup>51)</sup>

## 2.3. 교리의 이중적 사용

칼빈이 이 교리를 강조한 것은 단지 순수한 교리의 정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종교 개혁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의 중요성이 교회의 제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바꾸는 역동적 변화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었다.

칼빈은 교리에 대하여 이중적 관점으로 사용한다. 성경에 근거한 참된 교리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도록 말한다. 칼빈이 말하는 기준이란 거짓된 교리의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특징은 사탄의 역사인데 대중적이며 세상적이라고 한다. 주의 나라를 어지럽히며,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진리를 탄압하며, 악한 자들을 통하여 논쟁과 교리상의 충돌을 일으켜,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마침내 진리를 멸절시킨다고 한다.<sup>52)</sup>

### 2.3.1 거짓된 교리

칼빈의 “거짓 교리” 비판은 단지 로마 가톨릭과 재세례파의 오류를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 개혁의 전체적 방향과 구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칼빈이 보는 거짓된 교리(*falsa doctrina*)는 말씀과 복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떠난 교리이다. 말씀을 떠난 교리, 로마 천주교의 교리(공로 사상, 사제 독신주의, 교황제도와 직제 등), 소르본 학파의 교리, 헛된 교리, 오류의 교리(*doctrina erronea*)등 부정적으로도 사용되었다.

잘못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교회 제도, 교회 법전을 인간의 교리적 결정을 정하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몬타누스가 주장했고 그 후에 보편화된 금식법이나, 독

48) Inst., 1.8.1.

49)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52-53. The Epistle to Titus 1:2. 283.

50) 존 칼빈, 『로마서 주석』 9:14 (서울: 규장출판사 2013), 351.

51)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41-42

52)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66-67.

신제도,<sup>53)</sup> 로마 교회의 교황청과 교직 계급제는<sup>54)</sup> 성경이 한계를 넘어선 비 성경적 교훈이라고 한다.

칼빈은 교리는 사탄에 의하여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 사탄의 거짓된 교리는 대중의 환심을 받고, 폭력을 행하게 하고, 악한들을 통하여 논쟁과 교리상의 충돌을 일으키어서 진리를 맹렬히 탄압하고, 진리를 계속 공격하고,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진리를 질식시킨다고 한다.<sup>55)</sup>

칼빈은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내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즉 주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sup>56)</sup>

칼빈은 성령을 핑계 삼아 성경을 떠나 다른 교리로 비화하려 하는 자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성령님은 새로운 교리를 날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교리를 우리 마음속에 인치시기 위해 약속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57)</sup> 이 처럼의 성경을 벗어나 인간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새로운 교리를 만들진 것이 바로 거짓된 교리라고 보았다.

### 2.3.2. 참된 교리

칼빈에게 참된 교리는 교회 개혁의 ‘이유’이자 ‘내용’이며 ‘기준’이다. 참된 교리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 곧 교회 개혁의 시작점이자 목표점이며, 교회의 정체성과 일치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잣대로 기능하였다. 교리란 진실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칼빈은 교리나 가르침의 순수성이 **교회의 영혼**이라고 언급하였다.<sup>58)</sup>

**참된 교리(vera doctrina)**의 의미는 순수한 경건의 교리(sincera pietatis doctrina)로 성경에 일치되는 교리이며, 올바른 교리이다. 성경으로부터 기원한 성경의 교리, 순수하고 참된 진리의 교리, 복음의 교리, 하늘의 (거룩한) 교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리,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와 성경의 맥락에서 사용된 교리는 올바른 참된 교리로 인정되었다. 사도 바울의 의도에 조화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른 것이 참된 교리이다.

칼빈이 진정으로 사용했던 교리는 신학 아래의 수준이 아니다. 진정한 거룩한 신학의 본질을 추구하고 가르쳐야 할 하늘의 기원을 가진 주님의 교훈이다. 거기에는 인간의 주장과 새로운 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교훈하는 가르침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전달 방법이었다고 한다.

비록 칼빈의 말하는 교리가 신학처럼 학문화가 되지 않은 형태이며, 기독교 강요나 주석에서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칼빈의 신학을 이해하고 칼빈에 있어서 신학의 정의를 유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용어이다. 성경적 신학적 내용을 해석하는데 두 용어가 의미적으로 서로 공용되었다. 결국 칼빈이 인정한 참된 교리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신칭의,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구원의 교리 등이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자신이 교회에서 교사의 직책을 맡은 이후 **순수한 경건의 교리(sinceram pietatis doctrinam)**를 보존하여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53)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58.

54)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62.

55)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67.

56) Inst., 4.8.15.

57) Inst., 1.9.1.

58) 존 칼빈, “제 2판 헌사”, 『사도행전 주석』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4), 10.

것에 힘썼다고 한다. 이 글에서 그가 교사 사명을 위한 노력이 명칭이 순수한 경건의 교리였다고 고백하였다.

1560년 불어판의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성경 자체가 완전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Holy Scripture contains a perfect doctrine)고 말한다. 그러므로 구원의 교리(the doctrine of salvation)를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도움의 필요성을 말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진리와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all truth and sound doctrine proceed from God)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기독교 교리의 총체(s sum of christian doctrine)를 갖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독교 강요를 읽도록 권면을 한다.

1559년 라틴판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순수하고 경건의 교리(sinceram pietatis doctrinam)를 보존하여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을 언급한다.<sup>59)</sup> 교리는 독자에게 순수한 경건으로 이끄는 교훈이라고 한다. 후에 자신이 성경 주석을 집필할 때 교리를 길게 논할 필요가 없고 간단 요약해서 다루겠다고 한다.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교리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는 보았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교리의 가르침으로서 기독교 강요가 필요한 이유였다.

1536년 초판에서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에서는 프랑스에서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곳이 없다고 안타까워 한다.<sup>60)</sup> 로마교회는 끊임없이 프랑스의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공격하고 증오와 혐의의 대상을 만든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사악(邪惡)한 자들의 횡포가 극도에 달하여 폐하의 나라에서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책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나의 신앙 고백을 폐하게 보여 드릴 수 있다면, 이것으로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현재 불과 칼로 나라를 소란하게 하고 있는 그 광인(狂人)들에게 광적인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교리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폐하께서 알게 되신다면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이 교리는 마땅히 투옥과 추방, 몰수와 화형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육지에서나 바다에서 완전히 송두리째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 교리의 개요(概要)를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sup>61)</sup>

칼빈은 자신이 옹호 하는 교리를 거짓 비방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있음을 호소한다.<sup>62)</sup> 칼빈이 주장하는 교리는 반대파에 의해서 새로운 교리로 오해받으며, 교부들과 전통에 반대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sup>63)</sup> 이런 오해에 대하여 칼빈은 자신이 말하는 교리는 어떤 새로운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미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진리로 확증하신 바로 그 복음을 말한다고 한다. 칼빈은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는 대부분의 교부들의 찬성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그리고 건전한 교리의 표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한다(요 7:18, 8:50).<sup>64)</sup>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참된 교리의 성질이다.

59) 존 칼빈, “독자에게 드리는 글”, 14.

60)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41.

61)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41-42

62)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43.

63)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49-51.

64) 존 칼빈,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52-53.

칼빈은 당시 스콜라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학문적 정의로서의 신학보다는, 프란시스 1세나, 복음의 참된 교리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교리(가르침)라는 용어를 훨씬 선호했다. 칼빈은 참된 교리는 복음의 순수한 진리의 가르침으로 보았다. 그것은 순수한 복음의 가르침이며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 진리였다. 이처럼 칼빈은 부정적 의미를 풍기는 신학 용어를 교리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교훈적, 실재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 IV. 유추된 신학의 정의(definitio analogica theologiae)

우리는 앞서 칼빈 사용한 거룩한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와 신학자(theologus)가 누구이며 그 임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살폈고, 신학과 거의 교환되는 단어로 교리(doctrina)라는 개념 속에서 칼빈의 신학을 이해했고 그것에 근거하여 칼빈의 신학의 정의를 유추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글을 종합하여 거짓신학과 참된 신학을 살펴보고 칼빈에 있어서 <신학의 정의>를 유추한다.

거짓된 신학(falsa sive speculativa theologia)은 칼빈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비판한 신학 형태로서, 성경의 단순성과 본래적 의도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이성, 전통, 권위를 기준으로 삼아 성경 위에 군림하려는 신학이다. 이러한 신학은 특히 칼빈이 강력히 배격한 사변적 신학(speculativa theologia)의 전형을 이루는데, 이는 끝없는 구분(distinctio), 논쟁(disputatio), 그리고 궤변적 논증(sophistica)을 통해 성경의 명료성을 혼탁하게 만들고, 신학을 경건과 실천에서 분리된 지적 유희로 전락시킨다. 더 나아가 거짓된 신학은 그리스도를 신학의 중심에서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된 의미에서의 “하나님에 관한 논의(sermonem de Deo)”가 아닌 철학적 사색이나 종교적 담론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신학은 칼빈이 말하는 “신학의 첫 번째 원리(primae theologiae regulae)”, 곧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미래 행위, 공로, 자격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전가하며, 이 점에서 로마 가톨릭 신학과 당대의 소피스트들은 거짓된 신학의 대표적 전형으로 지적된다. 결국 거짓된 신학은 교회를 세우는 데 실패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교만을 낳고, 신학자를 하나님의 파수꾼이 아니라 교회의 약탈자로 전락시키는 신학으로 귀결된다.

참된 신학(vera sacra theologia)은 칼빈에게서 단일한 정의 문장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그의 저작 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들을 종합할 때 일정한 신학적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참된 신학은 거룩한 성경(sacra Scriptura)으로부터 나오며 철저히 성경에 종속된 신학으로서, 성경을 판단하거나 초월하는 자율적 학문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섬기는 봉사의 학문, 곧 성경의 봉사(ministerium Scripturae)이다. 『기독교 강요』의 목적이 신자를 하나님의 말씀 읽기로 이끄는 길(aditus ad lectionem verbi Dei)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칼빈이 이해한 신학의 본질이 성경 이해에 대한 봉사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성경 중심성은 곧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귀결되는데, 칼빈에게서 모든 신학은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Christus mediator)를 통해서만 성립한다. 그는 요한복음 14장 6절 주석에서 “그리스도와 분리된 모든 신학은 허망하고 혼동스럽고 광적이며 가짜”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 논의는 더 이상 신학이 아니라 오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 나아가 참된 신학은 성령의 내적 증언(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 아래에서만 가능하며, 단순한 문자 연구나 이성적 추론에 머무는 신학은 생명의

빛에 이르지 못한 채 ‘문자의 신학(theologia literae)’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성령론적 토대 위에서 참된 신학은 결코 지식 축적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가 결합된 경건(pietas)을 산출한다. 이 경건은 다시 순종과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건덕(aedificatio ecclesiae)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참된 신학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며, 교리는 개인적 사변이나 학문적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를 가르치고 보호하며 인도하기 위한 규범적 가르침(doctrina)으로 기능한다.

지금까지 탐구를 통하여 칼빈에 있어서 유추된 신학의 정의(analogical definition of theology)을 정리해 본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직접적 정의를 제공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성경 안에서 주어지고, 그 계시가 교회 안에서 교리로 정식화되며, 신학자에 의해 해석·정리·봉사적으로 제시되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되는 학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은 신학자의 사변적 구성물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형성된 교리적·교회적 학문이며, 그 정의는 언제나 대상(하나님)과 수단(성경, 참된 교리), 주체(참된 신학자), 공동체(교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유추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학은

- ① 신학자에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해석적·교육적 소명이며,
- ② 교리에 있어서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 없이 요약하고 보존하려는 규범적 표현이고,
- ③ 교회에 있어서는 신앙과 삶을 인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적·영적 봉사이다.

이처럼 칼빈에 있어서 신학은 하나님을 직접 정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 안에서 성경적 참된 교리로 수용되고, 참된 신학자에 의해 질서 있게 진술되는 그 관계적 작용 전체를 통해 유추적으로 정의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의를 한다면 신학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돕는 참된 지혜이다. 결국 칼빈에게서 신학은 학문적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인간을 바로 세우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생명의 체계이자 경건을 위한 봉사이다. 칼빈에게 신학은 권위를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포고(布告)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위한 봉사(Theologia est ministerium Scripturae)의 학문이다. 진정한 신학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온 참된 교리를 충실히 전달하여, 성도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V. 결론

칼빈의 신학에서 신학은 결코 이론적 체계나 사변적 학문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cognitio Dei)으로부터 출발하여, 교회와 신자의 삶을 형성하고 인도하는 지혜와 경건의 학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신학 이해는 단일한 정의 문장으로 포착되기보다는, 계시, 인식, 교리, 경건, 교회와 같은 중요한 개념들의 상호 연관된 관계망 속에서 유기적으로 형성된다. 바로 이 점에서 칼빈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사변적이라기 보다는 실

천적이며 목회적인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의 정의'를 직접적인 규정에서 찾기보다, 그가 사용한 거룩한 신학, 참된 신학자, 참된 교리라는 핵심 개념들의 실제적 사용과 상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유추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칼빈은 '신학(theologia)'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을 극도로 절제하였으며, 대신 '거룩한 교리(sacra doctrina)', '경건(pietas)',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중적 지식(duplex cognitio Dei et hominis)'과 같은 표현을 통해 신학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신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절제했던 칼빈은 신학을 자율적 학문 체계로 독립시키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와 교회의 삶에 종속시키려는 그의 신학적 의도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신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직접적 정의를 제공하는 학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계시는 성경 안에서 주어지고, 그 계시는 교회 안에서 교리로 수용되고 정식화되며, 신학자에 의해 해석·정리·봉사적으로 제시되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된다. 이 의미에서 신학은 신학자의 사변적 구성물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형성된 교리적·교회적 학문이다. 따라서 신학의 정의는 언제나 대상(하나님), 수단(성경, 참된 교리), 주체(참된 신학자), 공동체(교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유추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적 이해 속에서 신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신학자에게 있어 신학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해석적·교육적 소명이다. 칼빈에게 신학자는 결코 자신의 명예나 지적 우월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봉사자'이다. 신학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파수꾼이 아니라 교회의 약탈자가 된다. 이 점에서 신학자의 사명은 언제나 자기 절제와 하나님 영광 중심성에 의해 규정된다.

둘째, 교리에 있어 신학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 없이 요약하고 보존하려는 규범적 표현이다. 참된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경건과 순종의 삶을 낳는다. 반면 거짓된 교리는 성경을 떠나 인간의 권위, 공로, 전통을 강화하고, 경건 없는 지식과 형식적 신앙을 양산한다. 칼빈은 중세 스콜라 신학과 로마 가톨릭의 교리 체계를 이러한 거짓된 교리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하였으며, 교리의 왜곡이 곧 교회의 부패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회에 있어 신학은 신앙과 삶을 인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적·영적 봉사이다. 신학은 교회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학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는 봉사의 도구이다. 따라서 신학이 사변적 논쟁이나 체계 구축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것은 이미 본래의 소명을 상실한 것이다. 칼빈은 신학이 구원, 생명, 경건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신학은 언제나 신자의 삶과 교회의 현실 속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칼빈에게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적 결론으로 수렴된다.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을 직접 정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 안에서 교리로 수용되고, 신학자에 의해 질서 있게 진술되는 그 관계적 작용 전체를 통해 유추적으로 정의되는 학문이다. 그는 신학의 본질을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신학이 무엇이며 그것이 교회에 어떤 파괴적 결과를 낳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참된 신학의 윤곽을 간접적으로 증언하였다. 성경을 왜곡하거나 인간적 교리를 첨가하지 않고, 신학이 성경 이해의 충실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칼빈에게 있어서 참된 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인식하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중적 지식을 교회의 교리와 경건의 삶을 위해 체계적이고 규범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경건은 처음부터 칼빈 신학의 출발점이자 목표였으며, 그의 신학은 경건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드러내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신학은 언제나 교회를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학은 교회를 새롭게 한다. 이 점에서 칼빈의 신학 이해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신학에 여전히 중요한 신학적·방법론적 통찰을 제공한다.